

'GTWS 결승전' 무주서 열린다 세계 청년들, 진안으로 달려라

한국 최초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10월 개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한자리에

한국 최초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무주에서 열린다. 무주군이 세계 최고 권위의 트레일러닝 대회인 GTWS(Golden Trail World Series) 그랜드 파이널 2026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산악 지형과 깨끗한 생태 환경을 무대로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덕유산 일대는 고도차와 능선, 숲길 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수준의 탐방로 코스를 갖춘 곳으로, GTWS 조직위원회로부터 결승전 개최에 최적화된 장소로 평가받았다.

GTWS는 글로벌 산악 스포츠 브랜드 샬로몬이 2018년부터 주관·후원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일러닝 대회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무주에서 열리는 GTWS 최종 결승전에는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각 대륙 시리즈를 통과한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 세계 챔피언



무주군이 세계 최고 권위의 트레일러닝 대회인 GTWS(Golden Trail World Series) 그랜드 파이널 2026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GTWS 조직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운영 거점으로 삼아 선수와 관람객, 미디어 대응에 최적화된 국제 대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트레일러닝 거점을 넘어 세계적인 산악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선수들이 겨

루는 결승 무대인 만큼 수준 높은 대회 환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날 28일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스포츠 관광·문화 전문 기획사인 주식회사 피오씨와 대회 개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무주군은 대회 관련 행정적 지원을 맡고, 피오씨는 경기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양측은 대회를 계기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ESG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글로벌 홍보단 발대식 갖고 힘찬 출발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북자치도 진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

진안군은 지난 7일 진안군청 대강당에서 18개국 80명의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글로벌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아태청년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청년들이 직접 진안의 관광 자원을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오전 발대식에서 홍보단은 "RUN TO JINAN!(진안으로 달려가자!)"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역동적인 세리머니를 펼치며 '진안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다짐했다. 위촉장을 수여 받은 단원들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진안을 세계에 알리는 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 직후 홍보단은 전북의 주요 거점인 익산과 전주로 이동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와 온라인 숏폼 콘텐츠(릴스) 제작을 병행하여



은·오프라인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익산역 광장에서는 '진안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단체 릴스(Reels) 촬영이 진행됐다. 외국인 청년들은 최신 SNS 트렌드를 반영한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runtojinan'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및 공식 SNS에 업로드하며 전 세계 잠재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어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홍보 캠페인이 이어졌다. 홍보단은 시민들에게 진안의 주요 관광지 소개된 팸플릿과 포스터를 직접 배부하며 진안의 매력을 설명했다. 또한, 'Pick Your Jinan(당신의 진안을 선택하세요)' 투표 보드를 활용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진안의 관광 명소를 인지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종일 무소속으로 진안군수 출마 선언

전종일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9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으로 6.3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전종일 출마예정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산단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공급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호남의 젖줄인 진안 용담댐의 깨끗한 수자원을 이들 핵심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국가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용담댐 수문의



이품을 수자원 주권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이다.

전 출마예정자는 산업용수 공급에 따른 용담댐 수자원 이용권료와 '국가 전략산업 지원금 유치 대기업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상생협력기금을 파

격적으로 확보해 이를 진안군민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평생연금 전 국민 가구당 월 100만원 수준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며, "진안의 자원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풀어진 '자원 배당금'을 재원으로 삼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높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예정자는 "안전면장 시절 주민들이 용담댐을 바라보며 느꼈던 소외감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제 진안의 물은 더 이상 규제의 눈물 아니라, 국민의 통장을 채워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의 열려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됐으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방향 제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고영성 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서 설맞이 '장수한우' 판매 행사

장수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장수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B1 율가 매장 및 6층 장수한우명품관에서) 진행되며 장수한우 구이류와 정육류 등 다양한 상품을 백화점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판매 품목은 롯데심·치마살·부채살·업진살 등 구이류 4종과 양지·국거리·불고기 등 정육류 3종으로 구성



됐으며 장수한우 고평세트와 함께 장수사과, 오미자청 등 장수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계농협, 제56기 정기총회 성료

장계농협(조합장 곽정용)은 지난 5일 최홍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 회 의장,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현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등 내·외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계농협은 지난해 농가소득 향상 및 장수군의 우수한 농·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비 4,335톤(81억원)을 수매 하였고, 판매사업 662억원을 달성했다. 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뒤, 작년도 실적 240여원을 적기 공급했으며, 정액자금 508억원,



상호금융자금 3,095억원, 종합자금 68억원, 농축산경영자금 27억원, 사료구 매지금 48억원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담기순이익은 17억4천만원을 달성했고, 출자배당(3.9%)과 이윤공배당으로 10억4천8백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했으며, 사업준비금 4억3천6백만원을 적립하게 된 성과 있는 한해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육아용품·의료기기 대여 서비스 운영

무주군은 육아용품과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분유 셰이커와 분유 포트 2종을 추가했다.

대여 육아용품은 유축기 25개와 수유 시트 10개, 분유 셰이커 5개, 분유 포트 5개, 이유식 제조기 10개, 젓병소독기 12개 등 총 6종이다.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기 대여는 휠체어 12대를 대상으로 하며,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2개월이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의료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박차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감지기의 경보음은 자칫 대피가 늦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뫼인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소방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까지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동규 서장은 "벌써 떨어지는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님의 안전"이라며 "이번 설에는 고향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놓으려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